'백종원의 골목식당', 논란 끝내고 12% 기록

고깃집 사장님의 절실함 '주목'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11번째 골목 '회기동 벽화골목' 편을 첫 방송한 가운데,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지난 23일 방송된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평균 시청률 1부 9% 2부 10.5%(이하 닐슨코리아 수도권 가구 기준)를 기록해 지난 2일 기록했던 자체 최고 시청률 수치(10.3%)을 넘어섰다.

굳건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는 물론 주요 광고관계자들의 중요 지표인 '2049 타깃 시청률'은 5.7%였고, 최고 시청률은 12%까지 치솟았다.

이날 방송은 서울 회기동 '벽화골목' 첫 번째 편으로 꾸며져 피자집, 닭요릿집, 고깃집의 첫 점검이 이뤄졌다.

세 집은 대학상권에 속해있지만, MC 김성주는 "이 곳은 오디션 프로그램 때문에 7~8년을 계속 왔는데 가게가 계속 바뀐다"며 쉽지 않은 골목 상황을 전했고, 제작진 역시 "서울시와 경희대에서 '숨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적이 있었다"며 '새로운 '숨'이 필요한 골목임을 알렸다.

피자집은 요식업 직원 경력만 18년 거친 사장님이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저히 낮은 매출이 문제였다.

학기 중 하루 매출은 20만 원, 방학 때는 하루에 10만 원이었고, 지난 달에는 순이익이 한 달 35만 원이었다. 하지만 매출과 다르게 요리 실력과 센스는 수준급이었다. 꼼꼼한 성격과 탄탄한 경력은 요리 실력에 그대로 묻어났고, 백종원은 "맛있다"며 만족스러운 시식평을 남겼다.

닭요릿집은 이 골목에서만 20년 자리를 지킨 터주대감이었다. 부모님을 이어 2대째 가업을 이어받고 있는 사장님은 "남들은 잘 되는 가게라 생각하지만, 부모님과 운영 방식 트러블이 있다"며 "부모님이 만든 가게다 보니 어떻게 바꿔 나갈지 고민이 많다"고 털어놓았다. 백종원은 고기 떡볶이에 대해서는 호평을 남겼지만, 대표메뉴 닭볶음탕은 조리방식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호불호가 갈릴 맛"이라고 평했다. 또 주방을 살피더니 "20년 넘은 주방이다. 사장님과 심도 깊은 대화를 하도록 하겠다"라며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암시했다.

이밖에 '백종원의 골목식당' 최초로 고깃집이 등장했다. 하지만 상권에 맞지 않은 메뉴 구성과 가격은 시작부터 혹평이었고, 기성품 육개장이 메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모두가 놀라고 말았다.

백종원은 고깃집 상황에 안타까워했고, 사장님은 "'백종원의 골목식당' 촬영한다고 해서 잘됐다고 생각했다"며 "방송에 나가서 전국적으로 욕먹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다간 제가 해 왔던 비슷한 방식으로 가고 제 인생도 그런 식으로 갈 거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혼자는 상관없지만, 처자식도 있고 부모님도 있다"라며 가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복잡한 속내를 털어놨다.

이 장면은 분당 최고 시청률 12%로 '최고의 1분'을 기록했다.

'진심이 닿다' 이동욱-유인나, 거침없는 디스 티저 공개

tvN 새 수목드라마 '진심이 닿다'의 뒷담 티저가 공개돼 이목이 집중된다. 서로에 대한 거침없는 디스를 쏟아내는 이동욱-유인나의 '배틀 케미스트리'가 보는 이들을 폭소케 만들고 있다.

오는 2월 6일 첫 방송예정인 tvN 새 수목드라마 '진심이 닿다'(극본 이명숙, 최보림/ 연출 박준화/ 제작 스튜디오드래곤)는 어느 날, 드라마처럼 로펌에 뚝 떨어진 대한민국 대표 배우 오윤서(유인나 분)가 완벽주의 변호사 권정록(이동욱 분)을 만나 시작되는 우주여신 위장취업 로맨스. 이동욱-유인나가 주연을 맡고 박준화 감독이 연출을 맡아 시청자 마음에 닿을 드라마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23일, '진심이 닿다' 측이 뒷담 티저 영상 2종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공개된 티저 영상 속에는 완벽주의 변호사 권정록과 첫 출근에 연예인 포스로 등장한 오윤서(본명 오진심)가 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며 서로를 디스해 웃음을 자아낸다.

먼저 자신의 일을 도와줄 사람을 애타게 기다린 권정록은 업무를 소화하기에는 다소 과한 스타일링을 하고 등장한 신입 오윤서에 대한 답답한 속마음을 드러내 눈길을 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라며 하소연을 시작한 권정록. 이내 오윤서와의 첫 만남을 떠올린 그는 "'오윤서예요'라고 하길래 봤더니, 일하러 오신 건지, 시상식에 오신 건지"라며 블랙 미니드레스와 퍼 코트로 무장한 오윤서의 첫 출근룩에 대한 소감을 전해 폭소를 유발한다. 특히 권정록은 "전화는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대뜸 "날 물로 보지마!"라고 소리치고, 내선 연결은 물론 복사도 제대로 못하는 오윤서에 대한 디스를 폭풍처럼 쏟아내 보는 이들을 배꼽 쥐게 한다.

그런가 하면 우주여신 오윤서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하는 듯한 권정록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 웃음을 유발한다. 로펌에 첫 출근한 오윤서는 인사하려고 손을 내밀자, 자신을 째려보더니 전화는 받을 수 있냐고 물었던 권정록의 까칠한 첫 인상을 전해 관심을 집중시킨다. 이어 내선 연결 자체를 알지 못했던 오윤서는 전화선이 너무 짧아 권정록에게 전달할 수 없었다고 속사정을 고백해 웃음을 선사한다. 이에 더해 권정록이 복사를 하라며 전달한 서류 뭉치가 떨어지자 오윤서는 "봤어? 봤어? 일부러 놓치는 거! 지가 던져 놓곤 한숨 푹 쉬는데"라며 자신을 보고 한숨을 쉬던 권정록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 폭소를 더한다.

결국 권정록-오윤서는 '3개월간 어떻게 같이 일하냐'며 함께 일해야 하는 앞날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드러내고 있어, 당장 일손이 필요했던 완벽주의 변호사 권정록과 모든 게 처음인 우주여신 신입 오윤서가 만나 펼쳐질 웃음 가득한 상황들에 기대감이 수직 상승한다. 이에 티저 영상만으로도 케미 터지는 권정록-오윤서가 보여줄 달콤살벌한 위장취업 로맨스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진심이 닿다'의 뒷담 티저 영상이 공개되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벌써 베틀 케미 재밌다", "싸우면서 드는 정이 무서운 법이죠. '진심이 닿다' 기대하고 있어요!", "케미 대박. 이 케미 완전 좋음!", "전화선 짧다고 하는 진심이 너무 귀엽다", "티저 꿀잼. 첫 방송만 기다리고 있음", "티저부터 케미 장난 아닌 듯", "티저만 봐도 재밌음이 보인다. 기대돼", "이동욱-유인나 케미 최고! '진심이 닿다' 파이팅!" 등 뜨거운 기대감을 드러냈다.

'역량+자신감+인지도' 마마무 화사, 솔로 기대되는 이유

걸그룹 마마무로서도, 개인 활동에 있어서도 물오른 활약을 보여주며 '대세 of 대세'로 떠오른 화사가 이번에는 솔로 가수로 나선다. '마마무'라는 그룹으로 보여준 화사의 존재감과 각종 시상식에서 뽐낸 무대는 '솔로 가수' 화사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근 여성 솔로 가수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가시나' '주인공' '사이렌'으로 이어지는 3부작을 히트시킨 선미와 데뷔곡 '와이 돈 츄 노우?'부터 '벌써 12시'까지 4연속 홈런을 친 청하, 블랙핑크에서 가장 먼저 솔로 프로젝트로 출격한 제니가 대표적이다. 각각 원더걸스, 아이오아이, 블랙핑크로 그룹 활동을 한 선미와 청하, 제니는 음원차트, 음악방송을 휩쓸면서 여성 솔로 가수로서의 경쟁력을 증명했다.

여성 솔로 가수 계보는 마마무 화사가 이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마무 그룹 내에서의 존재감을 비롯해 시상식 솔로 무대에서 보여준 역량, 피처링 등을 통한 파급력, 예능에서 보여준 이미지 등이 시너지를 발휘해 최근 대세로 떠오른 화사가 솔로 출격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화사의 솔로 활동은 2014년 마마무로 데뷔한 뒤 5년 만이다. '실력파 걸그룹' 마마무 내에서도 화사의 존재감은 독보적이다. 모든 멤버들의 실력이 출중해 포지션 구분이 특별하게는 없지만 화사는 뛰어난 음색으로 도입부와 애드리브를 맡아 매번 새로운 느낌의 무대를 선사한다.

팀 내에서도 확실한 색깔과 존재감을 보여주지만, 솔로로서의 존재감도 이미 뽐낸 화사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연말 시상식 무대였다. 화사는 2018 MAMA, 골든디스크어워즈 등에서 솔로 무대를 꾸몄다. 자신감이 넘치는 화사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화사는 수영복을 연상시키거나, 몸매가 드러나는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라 '주지마'와 '핸즈 클랩' 무대를 꾸몄다. 파격적인 의상이었지만 논란은 없었고, 자신감과 당당한 매력이 돋보인다는 호평이 펼쳐졌다.

화사의 솔로 가수 데뷔가 기대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이다. 그룹으로 활동하던 이들이 솔로로 나설 경우 혼자 무대를 꾸며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다. 하지만 화사는 큰 시상식에서 솔로 무대를 꾸미며 경험을 쌓았고, 자신의 색깔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가수로서의 역량 뿐만 아니라 우주의 기운이 화사에게 쏟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예능 출연을 통해 인지도를 높였다. '나 혼자 산다'에서 곱창, 김부각, 간장게장, 장어 먹방을 펼치며 품절 대란을 일으킨 주인공이 화사다. 무대 위 화려한 아이돌이 아닌 평범한 일상에서 소탈하고 털털한 매력을 보여준 화사는 2018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신인상을 받으며 인지도를 높였다. 다양한 연령대가 이제는 화사라는 이름을 알기 때문에, 화사의 솔로 데뷔는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화사는 오는 2월을 목표로 솔로 앨범을 준비 중이다. 정확한 앨범 발매 일자와 콘셉트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화사'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힘은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경규 · 유세윤 · 장도연 '지금 1위는' MC

이경규, 유세윤, 장도연이 '다시 쓰는 차트쇼 지금 1위는' MC로 확정됐다.

MBC 설특집 '지금 1위는?'은 과거 가요차트 정상에 섰던 '1위 가수'에 밀려 1위를 하지 못했던 '도전 가수'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신세대 가수 '지금 보컬'들이 대결을 펼치며 차트를 새롭게 써보는 신개념 음악 예능 프로그램이다.

'지금 보컬'들은 '도전 가수'의 명곡을 2019년 감성으로 재해석해 기성세대에겐 추억을, 신세대들에겐 새로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방송에서 '1위 가수'로 김완선이 출연을 예고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완선은 1986년 '오늘 밤'으로 데뷔, 특유의 눈빛과 화려한 춤사위로 8-90년대 한국 가요계를 장악한 원조 디바이다. 오는 2월 4, 5일 양일간 방송된다.

오늘의 운세 2019년 1월 25일 금요일 (음력 12월 20일)

▶쥐띠 자신만만하다가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겠다. 재물이나 여성 문제로 망신수가 있으니 침착하게 처신하라. 꼬리가 길면 언젠가는 밟혀지는 법. 자신이 서 있는 현재 위치를 다시 생각해 봄이 좋을 듯. ㅂ, ㅇ, ㅈ 성씨는 구설이 따르니 주의하라.

▶소띠 계획한 일이 안된다고 낙심하지 마라. 현 상태는 참을성이 필요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임을 알라. 금전관계로 구설이 뒤따르니 형제간 도움이 요구된다. 1, 4, 11월생은 소, 양띠 있으면 간청해 보라. 남, 서쪽에 귀인이 나타날 수 있다.

▶호랑이띠 나무에 잎이 무성하듯 지금 서광의 빛이 눈앞에 와 있음을 알라. 빨리 이 운을 잡아라. ㅂ, ㅅ, ㅇ 성씨는 말조심해야 다된 밥에 재 뿌리는 결과를 모면한다. 1, 2, 3월생은 파란색이 행운의 색. 푸른 계통 옷을 입어라.

▶토끼띠 분주하기만 할 뿐 소득이 없다. 무엇이든지 신중을 기해 일을 처리하라. 과욕은 버리고 순리대로 분수를 지킴이 좋을 듯. 애정으로는 꽃이 피다 갑자기 지는 격. 상대를 진실로 마음껏 사랑해줘라. 1, 3, 5, 9월생은 남쪽에 방해자 조심.

▶용띠 ㄱ, ㅇ, ㅈ 성씨는 순조롭게 잘된다고 허황된 생각은 금물. 권위 의식을 버리고 남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할 때. 꽃이 피고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좋은 결과 있겠다. 그 결실의 때가 눈앞에 와 있으니 유념하라.

▶뱀띠 3, 5, 9월생은 목적을 위해 물불을 안 가리고 덤벼들었다가 실망 크겠다. 분수를 지키고 한걸음 뒤로 물러 전진할 때 좋은 결과 있을 듯. ㅂ, ㅇ, ㅊ 성씨는 자식 걱정하다가 닭, 꿩 다 놓치는 격이니 냉정한 판단이 요구됨.

▶말띠 성급한 행동은 오히려 해를 가져온다. 때를 기다리며 자기 수양에 힘쓸 때다. ㄴ, ㅈ, ㅊ, ㅎ 성씨는 사업이나 가정문제는 새로 시작하는 자세로 출발하라. 1, 7, 11월생은 진실된 삶을 추구하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져야 구설이 없다.

▶양띠 매사 꼬이는 것 같아도 약간에 어려움만 이겨낸다면 반드시 노력의 대가 있을 듯.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 서두르지 않는다면 서서히 운이 열릴 듯. ㅂ, ㅇ, ㅊ 성씨는 애정문제를 점검하라.

▶원숭이띠 ㄱ, ㅅ, ㅇ, ㅊ 성씨는 계획한 일, 사업 모두 전망이 밝다. 능력주의 시대이니 건강이 허락하는 한 힘껏 밀고 나감이 좋다. 헌집 버리고 새로 신축하려면 망설이지 말고 시도하라. 5, 8, 11월생은 북, 서쪽에서 좋은 소식 들릴 듯.

▶닭띠 주변의 조언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상책이다. 문서관계에 신중을 기하라. ㅁ, ㅊ, ㅍ 성씨는 남의 일에 휘말려서 자기 것까지 다 빼앗길 수 있다. 1, 5, 9월생은 큰 자식에게 근심할 일 생길 듯. 매사 언행 조심하고 말을 적게 하라.

▶개띠 자기주장만 내세워 급히 서두르다 보니 일을 벌려만 놓았을 뿐이다. 결과는 얻지 못한 채 방황하는 격. ㄱ, ㅅ, ㅇ 성씨 건강을 지키는 것만이 사업에 성공하는 지름길. 1, 5, 8월생은 매매건 불이익하다. 관재수 조심.

▶돼지띠 ㅂ, ㅇ, ㅊ 성씨는 고비를 넘기고 좋은 시기가 펼쳐지는 날이다. 고생 끝에 낙이 있다. 채무관계, 재판 일로 고심하지 말라. 그대의 마음 하늘이 돕는다. 1, 4, 9월생 남자는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겉으로 표현하라.